

고령화사회 관련 정보제공 전·후의 노후상황별 주거선호 특성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for Each Aging Situation before and after Providing Information of Aging Society

이 연 숙*	신 화 경**	이 동 주***
Lee, Yeunsook	Shin, Hwa-Kyoung	Lee, Dong-Joo
윤 혜 경****	이 준 민*****	유 혜 정*****
Yoon, Hae-Kyung	Lee, Joon-Min	Yoo, Hea-Jung

Abstract

The aging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so that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future socie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eliminary retiree's alternative housing preference by providing an accurate information about residential current issues and the seriousness brought by the aging society. It explained the visual information about the aspect of the residential change due to the aging society to 104 preliminary retirees who live in the apartment in Seoul. It survey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housing preference following 4 situations of the Old age type(couple/healthy, couple/ill, single/healthy, single/ill). It analyzed the difference of housing preference before and after provid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previous apartment is not enough to prepare the aging society and UIBS(unit insertion building system) for the elderly was expected to be a great help to the frail after 2026. Second, the preference of UIBS was increased after providing information of the aging society. Third, in the case of the illness, a big city with medical facilities was preferred not to move in the suburb. Fourth, after providing information, a small size of apartment was preferred but the preferred change of housing ownership was not founded. Last, there was considerabl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4 situation of Old age type. These results showed the feasibility of coping with more accurate future society only if a survey should be taken with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aging society.

키워드 : 아파트, 예비 은퇴자, 주거계획, 대안주거선호, 고령화 사회

Keywords : Apartments, Preliminary Retiree, Housing Plans, Alternative Housing Preference, Aging Socie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이 겪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후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에서의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반해, 노인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즉 전후세대인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970년대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노인조차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측은 미래의 사건으로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모호하다. 게다가 미래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이를 해석할 만한 통합된 사고를 갖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상황에 대한 대응은 정확한 예측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그러한 예측에 기반을 둔 전략 수립이야말로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한 후, 예비은퇴자들의 대안주거 선호특성을 4가지의 노후상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제공

* 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yeunsooklee@yonsei.ac.kr)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hkshin@smu.ac.kr)
 *** 교신저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luckydj@hanmail.net)
 ****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hg_yoon@yonsei.ac.kr)
 ***** 상명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ljmljy@paran.com)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yellowishj@yonsei.ac.kr)

본 연구는 서울시 융합과학기술실버산업 연구개발 사업(과제번호: 10634)에 의해 수행되었음.

전·후의 대안주거 선호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존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문헌고찰

2.1 은퇴와 노후상황

은퇴(Retirement)란 마음의 상태, 생활방식,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 더 나아가 그것들의 복합체(Mitchell, 1972)일 수 있어 그 중 어떤 의미를 택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 및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은퇴의 개념이 서서히 변화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퇴와 관련된 주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권문일, 1996). 우선 주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생활의 질을 추구하고 되었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은퇴 후의 늘어난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김혜연, 2005).

노인에 대한 개념 또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건강의 악화나, 경제적 상황, 자녀로부터의 독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65세를 노인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예비은퇴자들의 범위는 10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45세~55세의 예비은퇴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1>과 <표 2>는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노후계획과 노후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선호 특성을 해석함에 있어 참조될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노후계획 (N=102)

노후계획	빈도	백분율(%)	
노후경제규모	3억 미만	17	16.7
	3억~5억	33	32.4
	5억~10억	24	23.5
	11억 이상	28	27.5
노후 이주계획 유무	Yes	77	75.5
	No	25	24.5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3.7%가 'Yes', 36.3%가 'No'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이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6.3%로 의외로 많았다. 노후를 위한 경제규모에서 3억~5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11억 이상이 27.5%로 상당한 규모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에 '이주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7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연령이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이라 정의하는데, 노인복지법 및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한다.

표 2. 응답자의 노후인식 (N=102)

노후인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상수명	102	70.00	100.00	83.3	6.09
희망경제활동 나이	100	50.00	80.00	66.7	5.40
노후시작시기	100	45.00	75.00	63.1	5.15

미래의 평균 예상수명은 83.3세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경제활동 평균 나이는 66.7세로 나타났다. 노후시작시기의 평균나이는 63.1세로 나타났다. 노후가 시작되고도 대략 3년 6개월 정도 더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34%를 차지하는 초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수와 비중이 빠르게 높아가고 있다는 점 외에 후기노인의 수와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후기노인의 증가는 곧 치매노인 수와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노인은 일반인과 달리 한번 아프게 되면 지속적인 경우가 많고 만성 질병이 있으므로 인해 의료 진료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또한 2020년에 생산인구 4명이 한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면 50년에는 생산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로 진입됨으로서 세대간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 5세의 아이는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하여 <그림 1>처럼 10명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서 부양에 대한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2절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두 시각화하였으며, 설문조사 시 배포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시각화 자료의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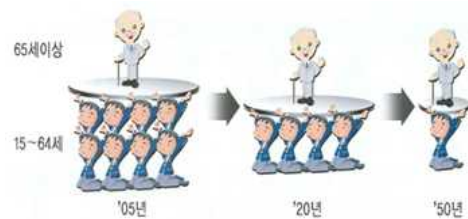


그림 1. 노인부양비 전망도

2.3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안주거

이연숙(2007)은 주거와 관련된 유형화 연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주거유형을 정리한 바 있다. 노후 상황별 선호하는 대안주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8가지로 분류하여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주요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표 3>은 고령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안주거 8유형으로 대안주거 개발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형태이다²⁾.

표 3.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대안주거 8유형^②

<p>① 일반 단독주택</p> 	<p>② 일반 아파트</p> 
<p>마당 또는 정원이 있으며, 개별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단독주택</p>	<p>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 속해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p>
<p>③ 별동형 단독주택</p> 	<p>④ 공동 사용주택</p> 
<p>혈연 또는 비혈연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두 개의 주택이 한 대문안에 계곡된 주택</p>	<p>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과 좌 함께 거주하며 개인침실 외 거실, 욕실, 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p>
<p>⑤ 빌라형 연립주택</p> 	<p>⑥ 노인복지주택</p> 
<p>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관리하는 단독형 주택들이 인접하여 균을 이룬 건물 또는 소규모 주거단지</p>	<p>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전용주거로 각종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 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p>
<p>⑦ 요양형 주택</p> 	<p>⑧ 은퇴자 커뮤니티</p> 
<p>심신이 쇠약해졌거나 일상생활 및 건강을 관리하기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전문적인 치료진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택</p>	<p>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형태가 제공되고 편의시설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가사 및 간호간병 서비스가 갖추어진 작은 도시</p>

위의 유형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특정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주거환경의 형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연숙은 UIBS(단위세대 삽입건물 시스템)³⁾ 개념을 통해 고령화

2) 이연숙(1993)이 「한국형 노인주택」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최근 황선혜(2010)는 예비노인(베이비부머)의 노인주거 선호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활용한 바 있음. 이는 본 저자가 개발한 것으로 밀레니엄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2009년 10월 13일, 프레스센터, 사회통합·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건축혁명 심포지움, 「생태학적 위기와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아파트 주거문화 혁신」,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주관, 이연숙은 발제강연에서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의무화당법' 및 'Unit Insertion Building System(UIBS)'을 제안하였음. 이는 본 저자가 개발한 것으로 밀레니엄 환경디자인 연구소에

사회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표 4>는 이연숙(2010)이 '복지사회를 위한 이시대의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2010년 12월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사회통합·친환경 정책 심포지움에서 제시한 기능삽입형 대안주거 8유형이다⁴⁾.

표 4.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기능삽입형 노인주거 8유형^⑤

<p>⑨ 커뮤니티가든형 노인주거</p> 	<p>⑩ 치매노인을 위한 대안주거</p> 
<p>⑪ 요양노인을 위한 대안주거</p> 	<p>⑫ 차지운영형 공유집합주거</p> 
<p>⑬ 기숙·하숙형 노인주거</p> 	<p>⑭ 독거노인을 위한 대안주거</p> 
<p>⑮ 케어서비스지원형 노인주거</p> 	<p>⑯ 보호형 노인주거</p> 

UIBS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Aging in Place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기능에 건강과 복지, 의료 등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삽입하고 교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앞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안주거 8유형보다 한 단계 진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장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은 고령화 사

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4) 이연숙(20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녹색성장 국가주요연구사업단 네트워크포럼. 사람과,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공생형 미래 아파트 디자인전. 이는 본 저자가 개발한 것으로 밀레니엄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5) "가능한 오랫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라는 문구가 유엔의 원칙으로 채택될 만큼 Aging in place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권고 19조, 22조-

회의 주거개념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대안주거 1~2의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대안주거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하여 ①일반주택과 ②일반아파트를 하나의 척도로 묶고, 나머지 ③~⑧까지의 유형을 또 다른 척도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다음 절의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특정 기능이 삽입된 ⑨~⑬까지의 유형을 하나의 척도로 설정하였다. 다만 ⑨~⑬의 주거유형은 ③~⑧까지의 유형과 달리 아파트 내 필요기능(헬스, 파밍, 카페 등)이 삽입됨으로써 Aging in Place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2.2절의 고령화 사회 양상과 2.3절의 대안주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전과 후의 주거선호특성(주거유형, 위치, 규모, 소유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4가지 노후상황에 따라 분석하였다.

2.4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일반인의 주거선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한 체계설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첫째, 고령화사회는 미래의 문제이기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4가지 미래상황, 즉 ① 부부/건강, ② 부부/악화, ③ 혼자/건강, ④ 혼자/악화의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였다(이연숙, 1993; 오찬욱, 1992; 고성룡, 1990; 박태환, 1990).

둘째, 주거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후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대안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6가지의 대안주거 유형을 추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표본추출에 있어, 미래 노후상황과 주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10년 이내 65세가 예비은퇴자로서 과거 아파트 거주경험이 있는 집단을 표본으로 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프와 시각화 된 자료를 설문지와 함께 제시하고, 1:1 대면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SPSS 통계처리 패키지를 통해 카이제곱 검증하였으며, 정보제공 전후의 응답변화에 유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선호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2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주거선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둘째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양상 관련 시각화 자료(제공된 정보), 셋째는 대안주거 16유형의 시각화 자료이다. 정보제공 전후의 응답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의 구성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전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노후인식(예상수명, 노후인식연령, 경제활동여부, 노후자금)
- ② 이주의사
- ③ 노후상황 정보제공(시각화 자료)
- ④ 대안주거 8유형 정보제공 및 설명(시각화 자료)
- ⑤ 노후상황별 선호주거특성(위치, 규모, 소유방식)
- ⑥ 기능삽입형 대안주거 8유형⁶⁾(시각화 자료)
- ⑦ 기능삽입형 대안주거에 대한 개인의견(서술식)
- ⑧ 노후상황별 선호주거특성(위치, 규모, 소유방식)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104부이며, SPSS 통계처리 패키지를 통해 기술통계량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7.1%가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여부에서 yes가 63.7%인 반면 No가 36.3%로 응답자의 연령이 50대임을 감안하면 의외로 많은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년 평균 소득은 4000~8000만원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 가족 수는 3명~4명이 6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는 31~50평이 61.5%로 가장 많았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102)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9	48.0
	여성	53	52.0
교육수준	고졸이하	36	35.3
	대졸	48	47.1
	대학원졸	18	17.6
경제활동여부	Yes	65	63.7
	No	37	36.3
년 평균 소득	4000만원 미만	29	28.4
	4000~8000만원 미만	47	46.1
	8000만원 이상	26	25.5
동거가족수	1명~2명	24	23.5
	3명~4명	67	65.7
	5명 이상	11	10.8
현 거주주택의 규모	30평 이하	16	15.8
	31평~50평	62	61.4
	51평 이상	23	22.8

3.2 주거선호 특성

주거선호 특성을 노후상황 즉, 부부가 생존하고 모두 건강한 경우(부부/건강), 부부가 생존하고 두 명 중 한명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부부/악화), 한명만 생존하고 건강한 경우(혼자/건강), 한명만 생존하고 아픈 경우(혼자/악

6) 본 과정에서는 자체로 기능삽입형 건물시스템 공유공간에 대한 사용자 반응조사의 목적도 있지만,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기능삽입형 대안주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설문작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됨

화)에 대해, 선호하는 노후주거 유형, 노후주거 위치, 노후 주거의 규모, 노후주거 소유방식에 따라 정보제공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충분한 정보제공 전후 응답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존까지 모르거나 간과하였던 부분에 의해 응답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 노후주거 유형 선호특성

대안주거 16유형에 대한 선호를 노후상황과 정보제공 전·후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노후상황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수록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부 중 한명이 생존할 경우보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음을 볼 수 있으며, 혼자 남겨지고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가 76.5%로 나타났음을 볼 때, 기능삽입형 주거는 후기노인(frail-aged)에게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가 모두 건강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노후상황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응답은 2%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단독주택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부/건강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정보제공 전에는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제공 후에도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건강의 경우에는 노인대안주거나 기능삽입형 주거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부부/악화의 경우에는 ‘요양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정보제공 전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제

공 후에는 ‘요양형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11.9%로 감소한 반면 ‘요양노인형’이 21.8%, ‘케어서비스형’이 23.7%로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자연환경과 시설이 우수한 곳을 선택하였지만, 자신의 주거지에 요양 및 케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Aging in place의 속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자/건강의 경우, ‘커뮤니티 가든형’과 ‘독거 노인형’은 각각 15.8%, 17.8%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혼자 남겨졌을 경우, 소일거리를 위한 텃밭, 모임장소가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혼자/악화의 경우, 정보제공 전에는 ‘요양형 주택’이 44.1%, 그리고 ‘은퇴자 커뮤니티’가 27.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제공 후에는 두 유형의 선호비율이 줄어든 반면, ‘케어서비스형’과 ‘보호형’이 각각 33.3%, 13.7%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기능삽입형 대안주거 유형 중 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 주거유형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 후 교류 및 접촉의 사회적 활동을 지향하는 ‘커뮤니티형’의 선호는 감소된 반면, ‘케어서비스형’과 ‘보호형’의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시설을 주동 내 삽입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건강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나 ‘일반아파트’로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대안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안주거에 대한 선호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후,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로 전환되

표 6. 노후상황별 선호주거유형 [빈도(%), N=102]

주거유형	노후상황	부부				혼자			
		건강		악화		건강		악화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일반형	①일반단독주택	14.7	11.8	2.0	2.0	2.0	2.0	0.0	1.0
	②일반아파트	39.2	27.5	7.8	3.9	34.3	13.8	3.9	3.9
	소계	53.9	39.3	9.8	5.9	36.3	15.8	3.9	4.9
노인대안주거	③별동형 단독주택	18.6	8.8	3.9	1.0	8.8	5.9	2.9	2.9
	④공동사용주택	8.8	2.9	4.9	0.0	10.8	3.0	5.9	0.0
	⑤빌라형 연립주택	3.9	3.9	1.0	3.0	6.8	2.0	3.9	0.0
	⑥노인복지주택	3.9	2.9	12.8	4.0	11.8	3.0	11.8	1.0
	⑦요양형주택	0.0	0.0	48.0	11.9	3.9	1.0	44.1	9.8
	⑧은퇴자커뮤니티	10.9	4.9	19.6	6.9	21.6	13.9	27.5	4.9
	소계	46.1	23.4	90.2	26.8	63.7	28.8	96.1	18.6
	기능삽입형 주거	⑨커뮤니티가든형		16.7		5.9		15.8	
	⑩치매노인형		0.0		0.0		0.0		1.9
	⑪요양노인형		4.9		21.8		4.9		9.8
	⑫자치운영형		3.9		2.0		4.0		3.0
	⑬기숙하숙형		4.9		1.0		6.9		2.0
	⑭독거노인형		2.0		2.0		17.8		9.8
	⑮케어서비스형		1.0		23.7		2.0		33.3
	⑯보호형		3.9		10.9		4.0		13.7
	소계		37.3		67.3		55.4		76.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노후상황별 주거선호 [빈도(%), N=102]

주거유형	노후상황	부부				혼자			
		건강		악화		건강		악화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정보제공 전	정보제공 후
노후주거 위치	대도시내	43.1	34.3	40.2	39.2	39.2	41.2	35.6	35.3
	도시근교	43.1	52.9	46.1	50.0	45.1	44.1	49.5	48.0
	지방도시 및 농촌	13.7	12.7	13.7	10.8	15.7	14.7	14.9	16.7
노후주거 규모	20평 이하	2.9	8.8	16.7	23.5	33.3	38.2	44.1	49.0
	21평~30평	34.3	38.2	38.2	39.2	46.1	47.1	41.2	40.2
	31평 이상	62.7	52.9	45.1	37.3	20.6	14.7	14.7	10.8
노후주거 소유방식	자가	96.1	94.1	71.6	66.7	78.4	73.5	58.8	53.9
	임대	3.9	5.9	28.4	33.3	21.6	26.5	41.2	46.1

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기능삽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는 부부일 경우에는 ‘요양노인형’과, ‘케어서비스형’이, 혼자일 경우에는 ‘케어서비스형’과 ‘보호형’이 선호되는 것과 같이 노후상황에 따라 선호주거유형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혼자/악화의 경우에 기능삽입형 선호비율이 높는데, 우리나라에서 혼자/악화의 비율이 전체노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2035년)에는 이러한 기능삽입형 주거가 실효를 발휘하고 주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치매노인형’은 부부-혼자 혹은 건강-악화의 상태에 무관하게 그리고 정보제공 전·후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치매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치매 기피심리가 반영된 결과인지 혹은 ‘치매노인형’을 병동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노후상황별 주거선호특성

노후상황에 따라 주거의 위치, 규모, 소유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전·후의 선호를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① 노후주거 위치 선호특성

전체적으로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주거의 위치로 ‘도시근교’를 가장 선호하였다.

부부/건강의 경우, ‘지방도시 및 농촌’의 선호는 정보제공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정보제공전의 ‘대도시내’ 선호빈도가 43.1%, ‘도시근교’가 43.1%로 같았지만, 정보제공 후에는 ‘도시근교’ 선호가 52.9%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악화의 경우, 정보제공 후 ‘도시근교’를 선호한 비율이 3.9%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건강에서의 9.8%보다 오히려 낮은 변화폭이다. 통상적으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공기와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여 교외로 더 이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오히려 ‘도시근교’보다는 ‘대도시내’를 선호한다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연환경보다는 의료시설에 더 의존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기능삽입형 주거에서 의료서비스를 아파트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노인의 의료복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자/건강의 경우, 위치에 약간(1%~2%)의 차이가 있

을 뿐, 큰 응답변화를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 남겨지더라도 건강하다면,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혼자/악화의 경우, 정보제공 전에는 ‘지방도시 및 농촌’에 대한 선호가 14.9%이고, 정보제공 후에는 16.7%로 약간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노후주거의 위치 결정은 부부의 경우에만 응답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도시 및 농촌’보다는 ‘도시근교’의 선호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② 노후주거 규모 선호특성

노후주거 규모에 대한 선호는 노후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전·후 큰 응답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건강의 경우 ‘31평 이상’의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악화의 경우 ‘31평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21평~30평’이나 ‘20평 이하’의 선호빈도도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주거규모가 작아지는 특성은 혼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혼자/악화의 경우 20평 이하가 가장 높은 선호빈도를 보였다.

정보제공 전·후 비교에서 4가지 상황 모두 정보제공 전에 비해 정보제공 후에는 주택규모가 작은 평수를 선호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실제로 규모가 큰 평수를 선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조사방식에서 이루어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을 계획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③ 노후주거 소유방식 선호특성

부부/건강의 경우, ‘자가’ 선호비율이 96.1%로 ‘임대’ 3.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 ‘자가’ 선호비율은 낮아지고 ‘임대’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특히 혼자/악화의 경우 ‘임대’선호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악화의 경우, ‘임대’ 선호비율이 혼자/건강의 경우, ‘임대’ 선호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부부생존보다 건강이 소유방식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유방식 뿐만 아니라 주거의 규모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부부/건강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노후상

황에서 모두 '임대' 선호비율이 정보제공 전보다 약 5% 정도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3.3 주거선호 변화 분석

설명 전과 후에 따라 주거선택 및 선호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명 전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거유형 선호변화 분석

16가지의 주거유형을 '일반주거형(①~②)', '노인대안주거형(③~⑧)', '기능삽입형주거형(⑨~⑯)'으로 분류한 후 재코딩 하고, 고령화 사회 관련 정보제공 전·후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노후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노후상황별 주거유형 선호변화 [빈도(%), N=102]

정보제공전 노후상황	정보제공후 노후상황	일반 주거	노인 대안 주거	기능 삽입형 주거	전체	χ^2 (Sig)
	노인 대안주거	2.9	19.6	23.5	46.1	
	전체	39.2	23.5	37.3	100.0	
부 / 약	일반주거	3.0	2.0	5.0	9.9	11.49 (.019)*
	노인 대안주거	3.0	24.8	62.4	90.1	
	전체	5.9	26.7	67.3	100.0	
혼 / 건	일반주거	12.9	6.9	16.8	36.6	16.62 (.000)
	노인 대안주거	3.0	21.8	38.6	63.4	
	전체	15.8	28.7	55.4	100.0	
혼 / 약	일반주거	1.0	1.0	2.0	3.9	3.90 (.114)*
	노인 대안주거	3.9	17.6	74.5	96.1	
	전체	4.9	18.6	76.5	100.0	

* = Fisher의 정확한 검정

정보제공 후 4가지의 모든 노후상황에서 '기능삽입형주거'에 대한 선호비율이 증가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대안으로 '기능삽입형주거'가 타 대안주거에 비해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삽입형주거'는 4가지 노후상황에서 혼자/약화(76.5%) > 부부/약화(67.3%) > 혼자/건강(55.4%) > 부부/건강(37.3)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기능삽입형주거'는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래서 후기노인들에 있어서 그 선호도가 높고, 사별보다는 건강악화상황에서 보다 선호됨을 알 수 있다.

2) 주거위치 선호변화 분석

노후의 주거위치에 대해 고령화 사회 관련 정보제공 전·후에 대해 교차분석하고, 노후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노후상황별 주거위치 선호변화 [빈도(%), N=102]

정보제공전 노후상황	정보제공후 노후상황	대도 시내	도시 근교	지방 도시/ 농촌	전체	χ^2 (Sig)
	도시근교	2.9	39.2	1.0	43.1	
	지방도시/농촌	2.0	2.0	9.8	13.7	
	전체	34.3	52.9	12.7	100.0	
부 / 약	대도시내	28.4	10.8	1.0	40.2	72.54 (.000)
	도시근교	10.8	34.3	1.0	46.1	
	지방도시/농촌	0.0	4.9	8.8	13.7	
	전체	39.2	50.0	10.8	100.0	
혼 / 건	대도시내	30.4	6.9	2.0	39.2	67.74 (.000)
	도시근교	8.8	33.3	2.9	45.1	
	지방도시/농촌	2.0	3.9	9.8	15.7	
	전체	41.2	44.1	14.7	100.0	
혼 / 약	대도시내	26.7	7.9	1.0	35.6	93.59 (.000)
	도시근교	8.9	37.6	3.0	49.5	
	지방도시/농촌	0.0	2.0	12.9	14.9	
	전체	35.6	47.5	16.8	100.0	

부부/건강의 경우, 정보제공 후 '대도시내' 선호비율이 8.8% 감소한 반면, '도시근교'에 대한 선호비율은 9.8%증가하였다.

부부/약화의 경우, 혼자/건강의 경우, 혼자/약화의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주거위치 선호변화는 0%~3.9%로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위치 변화의 폭은 주거유형의 선호변화의 폭에 비해 크지 않다. 정보제공에 따른 주거유형 변화는 큰 반면, 주거위치 변화가 적은 것은 기존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노후를 누리하고자 하는 'Aging in place'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주거위치에 대한 선호변화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부/건강의 경우에만 도심지에서 도시근교로의 선호비율 증가가 나타난 반면, 사별이나 건강이 악화되는 나머지 노후 상황에서는 선호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건강의 경우 신체적, 상황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에 있어 자유롭지만,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홀로 남겨진 적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교류와 접촉, 그리고 문화생활이 용이한 도심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적 상황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부/건강의 경우 정보제공 전 '도시근교' 선호비율이 52.9%로 '대도시내' 선호비율 34.3%보다 높다. 이는 통상적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기와 자연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통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보다 도시근교에 노인주택 및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고령화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주거위치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되었다는 상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미래의 실제상황은 정보 제공 후의 조사결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주거유형 선호변화와 주거위치 선호변화를 결부시켜 살펴보면, 노후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기존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노후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이 필요하고, ‘기능삽입형주거’는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수한 대안 중 하나이다.

3) 주거규모 선호변화 분석

노후를 위한 주거규모에 대해 고령화 사회 관련 정보 제공 전·후에 대해 교차분석하고, 노후상황별 선호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노후상황별 주거규모 선호변화 [빈도(%), N=102]

정보제공전 노후상황	정보제공후				전체	χ^2 (Sig)
	20평 이하	21~30평	31평 이상			
부 / 건	20평 이하	2.9	0.0	0.0	2.9	96.89 (.000)*
	21평~30평	4.9	29.4	0.0	34.3	
	31평 이상	1.0	8.8	52.9	62.7	
	전체	8.8	38.2	52.9	100.0	
부 / 약	20평 이하	10.8	5.9	0.0	16.7	70.85 (.000)
	21평~30평	10.8	25.5	2.0	38.2	
	31평 이상	2.0	7.8	35.3	45.1	
	전체	23.5	39.2	37.3	100.0	
혼 / 건	20평 이하	32.4	1.0	0.0	33.3	108.45 (.000)
	21평~30평	3.9	39.2	2.9	46.1	
	31평 이상	2.0	6.9	11.8	20.6	
	전체	38.2	47.1	14.7	100.0	
혼 / 약	20평 이하	40.2	3.9	0.0	44.1	105.86 (.000)*
	21평~30평	8.8	31.4	1.0	41.2	
	31평 이상	0.0	4.9	9.8	14.7	
	전체	49.0	40.2	10.8	100.0	

* = Fisher의 정확한 검정

전체적으로 정보제공 후 대형평수에 대한 선호비율은 감소하고 소형평수 선호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으며, 노후상황별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래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주거규모가 선호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된 선호되는 주택규모는 낮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상황별 주거규모에 대한 선호변화 분석 결과는 공동주택 주동 내 적정 기능삽입 면적을 탐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4) 주거 소유방식 선호변화 분석

노후를 위한 주거 소유방식에 대해 고령화 사회 관련 정보제공 전·후에 대해 교차분석하고, 노후상황별 선호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노후상황별 주거소유방식 선호변화 [빈도(%), N=102]

정보제공후 정보제공전 노후상황	정보제공후			χ^2 (Sig)	
	자가	임대	전체		
부 / 건	자가	94.1	2.0	96.1	66.61 (.000)*
	임대	0.0	3.9	3.9	
	전체	94.1	5.9	100.0	
부 / 약	자가	62.7	8.8	71.6	50.97 (.000)*
	임대	3.9	24.5	28.4	
	전체	66.7	33.3	100.0	
혼 / 건	자가	68.6	9.8	78.4	72.54 (.000)
	임대	4.9	16.7	21.6	
	전체	73.5	26.5	100.0	
혼 / 약	자가	50.0	8.8	58.8	56.64 (.000)
	임대	3.9	37.3	41.2	
	전체	53.9	46.1	100.0	

* = Fisher의 정확한 검정

부부/건강의 경우, 정보제공 후 ‘임대’ 선호비율이 2.0%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노후상황 모두에서는 ‘임대’ 선호비율이 4.9% 증가하였다.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노후 상황이 악화된 경우 ‘임대’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아 지지만,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소유방식에 대한 선호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4.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상황에 따른 주거선호특성을 고령화 사회 관련 정보제공 전·후 응답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주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전문가 지식과 비전을 통합한 방식의 조사결과로서 고령화사회의 주거문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단독주택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노인들이 기존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요구를 배려한 기능삽입형주거는 기존의 노인대안주거보다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2026년 이후에는 후기노인(frail)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을 위한 기능을 삽입한 ‘케어서비스형’과 ‘보호형’ 아파트는 타 세대간 통합효과와 Aging in Place의 노인 성향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능삽입형주거’는 4가지 노후상황에서 혼자/악화(76.5%) > 부부/악화(67.3%) > 혼자/건강(55.4%) > 부부/건강(37.3)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삽입형주거’가 사별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선호도가 높고, 사별보다는 건강악화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부가 모두 건강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이나 ‘일반아파트’로 충분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노인대안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후에는 이러한 선호도는 '기능삼입형 주거'에 대한 선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셋째, 통상적으로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공기와 자연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부부/건강의 경우 도심지에 대한 선호 변화가 발견된 바, 도심지에 우선하여 도시근교에 노인주택 및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넷째,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변화 분석에서 노후상황과 관계없이 정보제공 후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주택 소유방식은 정보제공 후 자가보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노후상황이 악화된 경우 이러한 선호변화의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 규모와 소유방식은 정보제공에 따른 선호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충분한 예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예측과 실제의 괴리(Gap)를 감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규명한 바, 기존의 모호하고 불충분한 정보제공 상황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보완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황선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상황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김혜연(2010).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황선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이동계획 패턴 연구: 생애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 10권 5호
- 황선혜(2008). 주거환경개선지구 다가구주택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임차인 요구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
- 김다해(2008). 다가구 임대주택의 디자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0권 2호
- 이연숙 외(2007).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1호
- 이연숙(2007). 노인주택 개념과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 김혜연(2005). 맞벌이 부부가계의 은퇴계획: 남편과 부인의 은퇴예상연령 및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9권 1호
- 곽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129.
- 박태환(1990). 한국의 노년층 주거개발과 주거환경 조성방안.
- 이연숙(1993). 고령화사회의 노인주택 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 2009」
- 이연숙(20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녹색성장 국가주요연구사업단 네트워크포럼. 사람과,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형 미래 아파트 디자인전
- 이연숙(1993). 한국형 노인주택. 서울:경춘사

투고(접수)일자: 2011년 6월 15일

수정일자: (1차) 2011년 8월 23일

(2차) 2011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0월 25일